

## Cite the Site that You Sight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아니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의 공해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취하지 못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어쨌든, 반도체 뿐만 아니라 세계 정보산업의 중심지라 할 만한 Silicon Valley의 한 도시에서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세계정보 시장의 숨막히는 경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음은 필자에겐 큰 행운이었다. 얼마전 이곳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집 값이 가장 비싼 곳이 이곳 Silicon Valley인데 그 중에서도 Los Altos시(市)는 평균이 97만불로, 이 시에는 멀리 San Francisco만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은 hill에 지은 집들은 최소 500만불을 호가한다고 한다. 이 시에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오직 머리와 종이만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에 뛰어들어 억만장자가 된 30~40대 거부들이 한 집 건너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만큼 정보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엄청나다. 이는 이야기일 것이다. 정보를 가장 빠르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막대한 부(富)를 안겨주는 것이고,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수요 또한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뜻일 것이다.

이곳에 있는, 한 시민 도서관의 인터넷용 컴퓨터실의 벽면에는, “찾아낸 그 Web site를 인용할 것”이라는 뜻의 “Cite the Site that You Sight”라는 표어가 붙어있다. 다른 뜻을 가지면서도 같은 발음을 가진 낱말들을 엮어, 깊은 뜻—지적 소유권(知的 所有權)에 관한—을 담으면서도 운율이 있게 표현한 영어의 묘미를 느끼면서, 역시 오늘의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인터넷의 위력을 생각하게 되었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숙고하게 되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은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할 정도로 위력적이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지 않고도 컴퓨터에서 그날 그날의 주요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접할 수 있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학습에 필요한 각종 문헌이나 자료도 아주 용이하게 접할 수 있어 도서관이 필요없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터넷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고 해도 우리가 찾고자(sight) 하는 그 곳에(site) 직접 발을 디디지 않고 그 곳을 ‘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용하고 전달(cite)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짧은 체재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당황함을 많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면, 전할 것 같은(?) 컴퓨터만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특히 문화적인 정보일수록 직접 그 곳에 가서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없는 법이다.

지난 6월 중순, 이곳에 나와 함께 와서 중학교 8학년을 보낸 큰 딸의 졸업식이 있었다. 모두들 무도회장에 나가는 귀부인들 같이 어깨가 흰히 드러난 이브닝 드레스를 걸쳐입고 졸업식장을 매운 이곳 아이들 속에, 어깨를 감춘 평상복을 깨끗이 다려입고 온 아이들은 아시아계 아이들 뿐인 것 같았다. 그나마 (필자 눈에는) 내 딸아이의 깨끗한 옷이 돋보였는데도 다른 아이와 대비되는 의상에 무척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필자에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졸업식이라는 게 졸업장을 받고 사진 몇 장 찍고 외식 한 번 하는 정도로 끝나는 우리의 문화에 대비할 때, 졸업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promotion party”, 곧 진정한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하루만의 잔치라도 이브닝드레스 차림으로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곳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땐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딸아이는 말로만 듣던 문화적 충격을 이곳의 졸업식을 통해 가슴깊이 체험했을 것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의 졸업식 해프닝을 바라보면서, 물론 말로는 괜한데 신경쓴다고 과민한 딸아이를 나무래긴 했지만, 부모로서 외국문화에 대한 좀더 사려깊은 정보를 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 딸아이에게 무척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작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직접적인 체험과 시행착오로서 얻는 정보들은, 비단 문화적 정보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때도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문헌을 통해 접하는 정보 중에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문헌을 통해 발표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들은 저자들의 연구내용을 아주 절제된 용어로 기술하기 때문에 더욱 불완전할 때가 많다. 그래서, 연구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논문에 기술된 내용대로 실험을 하여도 같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다는 불평이다. 이럴 경우,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찾은 문헌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몸소 느낀 경험이나 연구실에 전해 내려오는 해묵은 연구노트에 시시콜콜 적혀있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를테면, 반응물 A, B, C를 섞어 D가 생성된다고 할 때, 논문에는 단 1줄의 문장으로 단순히 그 사실만을 보고하고 있지만, 때로는 A, B, C를 한번에 혼합하는지, 아니면 A, B, C를 순차적으로 혼합하되, A, B를 먼저 혼합하고 C를 나중에 혼합하는지, B와 C를 혼합하고 나중에 A를 혼합하는지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보란 일차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지만, 최종 해법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이다. 비록 D를 만들기 위해서는 A, B, C 세가지의 기본 화합물이 필요하다는 실마리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이른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부분적으로 정보를 접하고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류는 엄청 클 수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홍수가 모두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서 언급한 표어를 볼 때마다, 정확한 정보의 인용을 위해서는, "Cite with Insight the Site that You Sight"라고 "통찰력을 가지고(with insight)"라는 표현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얼마전 한국의 선생님 한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보직이 "정보화 담당교사"였다. 딸 아이의 학교선생님께 서면으로라도 인사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 이 분을 무엇이라 소개하나 고민하다,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information"으로는 부족하고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담당 교사로 설명을 해야 "정보화" 담당 교사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은 "정보"는 information이지만, "정보화"를 위해서는 "information" 뿐만 아니라, "information"을 전달할 수 있는 "communication"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역시 정보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 보다 상호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에, "실리콘 밸리, 약속의 땅인가 벤처의 무덤인가" 하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한국의 벤처기업인이 이곳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진출성공 point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명언이 인상적이었다. 아무리 컴퓨터를 통한 정보습득이 중요해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기업인은 이곳에 진출하여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contact point를 찾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많은 기업의 예를 들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정보의 source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 <사람>사이의 만남임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체재하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부러운 것 중의 하나가 토론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은 빠르고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지만, 특히 학문의 세계에서 face-to-face discussion 즉 얼굴을 마주 보며 토론하는 현장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한 질의응답이나, 학술회의 참석이 필요하고, 학술회의에서의 poster session 논문발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학회에서 1년에 두번 봄, 가을로 연구발표회가 있고 그외에 별도로 토론회 같은 행사를 가지는 것도 같은 연유에서이다.

이곳 사람들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토론문화에 익어 있어, 이것이 학문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 연구실은 물론이고 복도를 걸으면서도 아무 곳이나 걸려있는 칠판에다 무엇을 쓰면서 열심히 토론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종이 쪽지를 꺼내 토론한다. 이러한 토론식 정보 교환이 때로는 인터넷을 통한 일방적 정보전달 보다 훨씬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회가 많다. 이른바 대화를 통해서 feedback되는 정보의 전달은 컴퓨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살아있는 정보가 될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이런 정보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정보엔 통찰력(insight)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정보는 그냥 인용만 되는게 아니라 자신의 다음과

체에 input되어 더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 겪어보고 느끼는 정보전달의 학습효과는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전달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이런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은 듯하다. 그 중에서도 솔직하지 못한 점과 체면치레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이런 의견을 낼 때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속내 마음은 잘 드러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다. 토론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토론에 매우 서툰 것 같다. 그래서 정치가들을 상대로 한 토론회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교실에서는 일방적인 지식전달만 이루어진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더라도, 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가 사회자가 지적을 하면 마치 못해 한 두 마디 한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이다.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늘 발언자가 정해져 있고, 발언하지 않는 방관자는 늘 방관자이다. 어떤 경우엔 토론시 다른 의견이 빌미가 되어 분쟁에 이르기까지 한다.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과정을 통해 토론을 갖는 그 단체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도, 토론에 서툰 우리 문화를 생각하며 미국사회에서의 성숙된 토론문화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도, 대학이나 연구소 할 것 없이 실내 뿐만 아니라 복도에다 되도록 많은 곳에 칠판을 걸어 놓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복도를 오가면서, 어느 곳에서나 생각이 나면, 서로 생각나는 바를 끄적거리며 토론을 즐기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당장의 어려운 문제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간단히 해결해 줄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제시한 발상과 질문과 제안에 의해,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과학적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토론문화에 익숙치 않은 우리에게 그런 칠판은, 처음엔 지나가면서 낙서를 끄적거리는 낙서의 장(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에게도 토론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결국은 토론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필요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도 요긴하게 습득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이다.

## 실 터 광 고

윙터는 회원의 수필기사를 다루어 기술지 기사를 정독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휴식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한 장입니다. 그동안 윙터란은 부산대학교 하창식교수의 수필을 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의 수필을 실었으면 합니다. 많은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구인 · 구직 광고

본 기술지에서는 국내 IMF 위기를 맞이하여 구인, 구직 문제가 회원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관심사로 부각되기에 구인, 구직에 관한 광고란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인, 구직에 관한 기사를 고분자학회로 보내주시면 정리하여 실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에 관한 내용은 **성명, 학력, 연령, 경력, 희망분야, 연락처, (희망급여)**, 그리고 구인에 관한 내용은 **업체명 또는 학교명, 모집분야, 모집인원, 연령, 학력자격, 경력, 근무지, 연락처, (월급여)** 등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되도록 간략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